

폭염에 말라 죽고

임채소값 폭등

장마에 출하 지연

■ 주요 임채소 도매가격(전월대비 상승률)

청상추(4kg) 53.600원(375.2%)	적상추(4kg) 59.400원(345.9%)	깻잎(2kg) 28.600원(108.5%)
-----------------------------	-----------------------------	----------------------------

<13일 기준>

집중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상추와 배추, 시금치, 깻잎 등 임채소 가격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다. 날씨 탓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데다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찾는 사람이 늘어 난 것이다.

특히 쇠고기 등 일부 육류 가격이 '급등'인 상황에서 휴가철이 시작되면 상추나 깻잎 수요가 늘어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청상추 4kg당 도매가격은 평균 5만 3600원이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무려 375.2% 급등

청상추 4kg당 도매가 5만3600원... 전월비 375.2% ↑

장바구니 물가 비상... 휴가철 앞두고 상승세 지속될 듯

한 것이다. 전년 동기보다도 232.5% 높은 수준이다. 적상추 역시 4kg당 평균 도매가격이 지난달보다 345.9% 뛴 5만9400원으로 집계됐다.

상추와 함께 휴가철 수요가 가장 많은 채소 중 하나인 깻잎 역시 2kg당 평균 도매가격이 2만8600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108.5% 올랐다.

이밖에 배추와 시금치도 각각 전월 대비 47.4%, 66.1% 상승하는 등 임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도 유독 임채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결국 공급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임채

소들이 날씨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상추 등이 잘 자라려면 일조량이 중요한데 찜통더위가 계속되면 이파리가 쉽게 마르거나 짓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산지에서 출하작업이 지연돼 공급량이 크게 줄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달 초부터 전국에서 장대갈이 쏟아진 장맛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연일 섭씨 32~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랐다.

여기에 이번 주 중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채소 가격

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과일이나 열매를 맺는 채소는 대부분 하우스에서 재배돼 날씨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최근 폭우로 일부 과일 재배 하우스 농가가 침수 피해를 보긴 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하지만 임채소는 날씨 영향이 크고, 상추나 깻잎 같은 경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육류와 함께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콜롬비아 FTA 오늘 발효

자동차·화장품 등 수혜 기대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 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국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세리프 TV 런칭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세리프 TV 런칭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세리프 TV를 디자인한 세계적 디자이너 에르만 부홀레(맨 왼쪽)와 모마 스토어 판매 총괄 엠마뉴엘 플렛(가운데) 등이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터미널, 서비스품질지수 7년 연속 1위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은 14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6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고속버스터미널 부문 서비스품질지수가 신설된 이후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쟁태도, 친절성 등 11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금호터미널은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24시간 전화 안내서비스와 자동발권기 등을 운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터미널 개념을 뛰어넘어 문화와 쇼

핑, 교통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호남 최초 아이맥스 영화관과 공연장, 대형 서점을 유치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터미널을 문화와 여가생활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올해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새롭게 단장한만큼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머물고 싶은 터미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8.77 (+3.22)
- ↓ 금리 (국고채 3년) 1.21% (-0.01)
- ↑ 코스닥 703.34 (+0.69)
- ↓ 환율 (USD) 1137.40원 (-9.00)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또 내려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 국내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은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4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밑돈 원인과 향후 전망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 1~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올 상반기 국내 석유류 가격 하락이 1~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정도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춘 최대 요인이라는 얘기다.

올 상반기 중 국제유가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랐지만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변화



자료/한국은행

연말뉴스

면 여전히 35%가량(두바이유 기준)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 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YES FTA 아카데미 열려

광주본부세관, 수출입업체 임직원 대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14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및 지역 수출입업체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YES FTA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이 지역 제조물품이 FTA체결국가로 수출될 경우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특혜를 향유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 FTA협정, 원산

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실무 등 전반적 FTA활용 교육을 수료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FTA활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정상화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으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세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062-975-8052).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최근 열악해진 수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생산물품이 FTA를 통해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3국과의 가격경쟁력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번호: 10-0562035호, 10-1097784호, 10-0548189호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